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Business Archives: Focusing on the Topic Modeling Analysis

김효선(Hyosun Kim)

E-mail: fromm2023@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박사수로



논문접수 2021-07-20
최초심사 2021-07-24
게재확정 2021-08-04

ORCID

Hyosun Kim
https://orcid.org/0000-0002-5166-6756

초 록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이를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 Scopus, LISA(ProQuest), LISS(EBSCOhost) 4개의 학술 DB를 활용하여 총 493편의 논문의 서지사항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문 초록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고유 단어를 추출하고 핵심 단어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전체 문헌 집단에서 7개 토픽을 추출한 후 각 토픽별 논문의 발행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토픽의 주제와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았다. 이들 토픽의 주제명은 각각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로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국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overseas business archives, compare them with domestic and related prior studies,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domestic business archives research. For the research analysis, bibliography from 493 papers was collected using four academic databases: Web of Science, Scopus, LISA (ProQuest), LISS (EBSCOhost). Follow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nd focused on the publication status of related papers, major journals, research forms, and researcher information. In addition, unique words were extracted through the data processing of English abstracts, and the frequency of the key words was identified. Through topic modeling, this study extracted seven topics from the entire literature group, analyzed the publication trends of the papers corresponding to each topic, and examined the topics and representative papers of that topic. The names for these topics were assigned as “access and usability of business records,” “information/evidence value of business records,” “importance and operational strategy of business archives,” “record management as a business heritage,” “management of business records in digital environments,” “preservation and disposal of business records,” and “historical value of business records.” Based on the prior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uture research on the domestic business archives.

Keywords: 기업 아카이브, 기업 기록, 연구 동향, 토픽모델링

Business archives, business record, research trends, topic modeling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https://jksarm.koar.kr>

www.kci.go.kr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이를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 아카이브와 기업 기록은 ‘영리(營利)’를 추구하는 기업이 생산 및 획득한 기록과 이를 보존 및 관리하는 아카이브라는 특성에서 다른 공공 영역이나 민간단체의 그것과는 차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록관리를 통해 얻는 이익과 이점이 기업이 본래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윤여현 외(2016)는 기록 정보는 현대 조직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의 하나로 보았으며, 설명 책임이나 법규 준수를 위해 증거로서의 기록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조직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King(2012)은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해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재의 경험과 지식, 사업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며, 기업 기록은 업무활동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기록은 정보적 가치, 업무 처리의 증거, 법적 요구사항의 지원 및 지적재산권 보호, 자원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 도구, 제품 혁신에 대한 영감과 증거, 브랜드와 고객 충성에 대한 확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료(史料) 관리’, ‘사사(社史) 편찬’,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역사관 건립’ 등의 형태로 최근 기업 기록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김효선, 김지현, 2019). 관련하여, 김성우, 이해영(2020) 역시 기업의 창업주 역사관이나 사사 편찬 및 사료 관리 등 비현용 기록 관리를 중심으로 실무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기업 기록의 생산, 획득 및 관리의 프로세스가 종합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채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가 관련 법 제·개정과 함께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한데 있으며, 더불어 민간영역 중에서도 특히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제적인 인프라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이론을 축적해온 해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해당 분야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해외에서는 특정 기업 자체(in-house)에 설치한 기업 아카이브 외에도 대학 내 소속된 도서관 및 기구에서 특정 기업의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거나 국가나 지역 내 아카이브 및 도서관에서도 기업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는 등 국내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기업 아카이브가 존재하며,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된 협의회 및 협회 내 분과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내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연구 동향 분석은 한 학문의 연구 활동 흐름을 파악하는 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해당 학문에 관한 연구 주제를 이해하고 향후 학문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연구자가 한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 이론을 만들고 연구 영역을 구축하기 전에 거칠 필수적 단계이다(김성환, 오효정, 2018). 이에 따라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연구 경향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분야를 막론하고, 학문 간 융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인 연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간된 관련 선행 연구를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총 493편의 관련 논문 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지 및 연구자 정보 분석, 핵심 단어 빈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 토픽모델링 기법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숨은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하나의 문헌에 하나의 토픽을 할당하는 방법과 달리 문헌

하나에 포함된 여러 개의 토픽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lei, 2012).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김효선, 김지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 아카이브(business archives)를 ‘기업 기록(records/archives)’ 및 ‘기업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repository)’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 기록의 경우 ‘현용/비현용’의 구분은 별도로 나누지 않았다. 다만 기업 아카이브를 기록(records/archives)과 장소(repository)로서 구분하기 위해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라는 용어로 표기하였다.

1.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연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국내 학술지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기업 아카이브 관련 주요 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발행한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2000년대 초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정착과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자체(in-house)에 세워진 기업 아카이브나 대학의 도서관/기구 내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국가/지역에 설립한 기업 아카이브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환경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고선미, 2002; 김유리, 2009; 주서진, 2008), 미국과 일본(김익한 외, 2000), 프랑스(김금이, 2008), 독일(김영애, 2003) 등이 있다. 이밖에 가장 최근의 연구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현황을 소개한 연구(김효선, 김지현, 2019)도 있다.

또한 동일 시기에는 기업의 비현용 기록과 사료 관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사(社史) 편찬(김재남, 2002; 최정애, 2005), 사료관리전략 수립(임종철, 2007), 사료관리시스템 도입(김화경, 2006), 사료실 구축(이동혁, 2018)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관련 세부 분야의 가장 최근의 연구로, 남재우, 김장환(2018)은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문제점과 현황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실제 기업의 보존기록 관리 사례를 소개하여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기업의 현용 기록에 관한 연구는 세부적인 주제 분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연구는 또한 대부분 학술지 보다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연구로, 기업의 현용 기록관리에 관한 일반론(김성우, 이해영, 2020; 이진석, 2018; 이현아, 2021),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정기애, 남영준, 2007; 채민훈, 이해영, 2021), 기록경영시스템을 기업 기록관리에 적용한 연구(강민호, 2015; 강선애, 2015), 특정 기업과 산업군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분석한 연구(고선미, 2002; 김민희, 2020; 박용부, 김태수, 2011), 전자증거개시 상의 이슈를 기업의 기록 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설문원, 2015; 설문원, 이해인, 2016) 등이 있다. 이밖에 기업 기록을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고 브랜드 마케팅,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업 기록관리를 분석한 연구(김민주, 2017; 양소연, 2021; 홍지은, 2011)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공공영역의 기록관리학 발전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사례와 기업의 비현용 기록 및 사료 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0년대부터는 기업의 현용 기록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며 석박사 학위논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관련 연구는 공공영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비현용 및 현용기록의 관리 방안 등의 연구들은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행해졌으나, 현재까지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누적된 연구 성과를 집적하여 종합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관련하여 박희진(2014)은 국내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연구 동향 파악과 함께 해외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연구 주제를 분석한 후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서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설계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문의 주제를 막론하고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문헌을 가능한 최대로 수집하기 위해 전 주제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술 DB인 Web of Science, Scopus와 문헌정보학 주제분야를 다루는 LISA(ProQuest), LISS(EBSCOhost)를 활용하였다. 이때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단행본, 학위논문,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술지 발행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0년까지 수집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발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의 서지사항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등의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 서지정보 가운데 영문 초록을 전처리하여 고유 단어 추출 및 상위 빈도를 파악하고,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토픽을 추출하여 해당 연구 주제를 탐색하였다. 영문 초록은 연구의 목적, 배경, 방법론, 결과 등 연구의 핵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비영어권 국가에서 발행한 외국어로 된 논문일지라도 영문 초록을 대부분 신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데이터 수집에 활용할 키워드 추출을 위해 SAA 기록학 용어사전(dictionary.archivists.org)에서 ‘business archives’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와 함께 해당 검색어의 NT(하위어)로 ‘corporate archives’, RT(유의어)로 ‘business record’가 시소러스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업(회사)을 뜻하는 영단어는 ‘business’, ‘corporation(corporate(adj.))’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시소러스 영어사전(thesaurus.com)에서 동의어를 찾아 <표 1>과 같이 합성어 형태의 키워드를 16개로 구성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한 4개의 학술 DB에서 <표 1>의 최종 키워드로 큰따옴표(“ ”) 연산자를 활용하여 영문 초록과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에서 구문 검색을 수행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의 서지사항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1> 데이터 수집에 활용한 최종 키워드

키워드 조합		최종 키워드
business	+	business archives, business record
company		company archives, company record
corporation(n.) / corporate(adj.)		corporation archives, corporate archives, corporation record, corporate record
incorporation(n.) / incorporated(adj.)		incorporation archives, incorporated archives, incorporation record, incorporated record
firm		firm archives, firm record
enterprise		enterprise archives, enterprise record
	archives / record	

검색 후 1차로 중복되는 문헌을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거하였으며, 2차로 관련성이 없는 문헌은 연구자가 제목과 영문 초록을 확인하여 일일이 제거하였다. 이때 주요 제외 대상은 단순히 기업 기록을 활용하거나

기업 아카이브로부터 자료를 얻어 다른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힌 논문이었으며, 복리뷰, 광고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종적으로 총 493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수집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3.1절에서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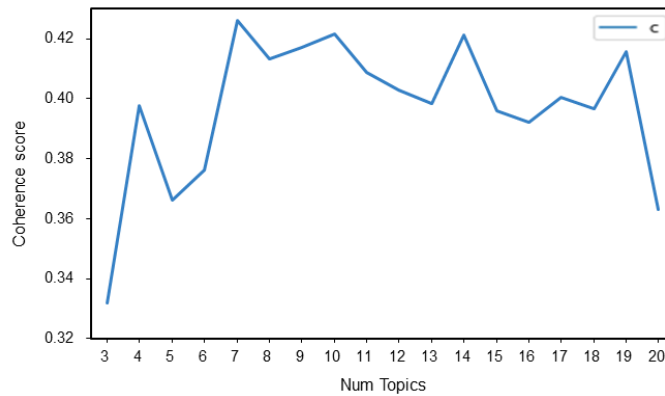
2.2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한 기법인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 영문 초록 내 모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어 통일하였으며, 숫자 및 특수문자를 삭제하였다. 이후 영문 초록 내에서 고유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모든 단어를 토큰화(tokenization)하고, 형태소를 분석하여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추출하였다. 이때 복수 형태의 명사는 단수화시켰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 시 활용한 <표 1>의 키워드들은 본 연구의 직접적인 키워드에 해당되며, 반복적으로 출현하므로 불용어(stop word)로 처리하였다. 이밖에 국가명, 회사명, 개인명 등의 고유명사와 연구와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article, paper, method, analysis 등의 단어도 불용어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전처리 과정은 Python의 nltk 패키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표준화된 최종 추출된 고유 단어는 총 2,005개이다. 이들 단어를 대상으로 TF-IDF에 따른 단어 출현 빈도표를 작성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3.2절에서 서술하였다.

2.3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말뭉치(corpus) 즉, 문헌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topic)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이며, 대량의 비구조화된 문헌 집합으로부터 복수의 잠재된 주제를 추측하기 위해 사용한다(Blei & Jordan, 2003). 토픽모델링은 주어진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통계 추론 모델이며,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 수 분포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다룰지 예측할 수 있다(조은누리, 장태우, 2020). 토픽모델링에서 단위 텍스트를 문헌 혹은 문서(document)라고 한다.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되는 대량의 문헌 집합을 코퍼스(corpus)라 한다. 토픽은 코퍼스의 주제 범주이며, 토픽마다 그 주제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토픽모델링 기법에는 LSA(Latent Semantic),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등이 있다(박준형, 류범모, 오효정, 2018). 이 가운데, LDA는 pLSA의 불완전성을 보완, 확장시킨 기법으로, 문헌 집합에서 잠재적인 토픽을 추출하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khija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가운데 LDA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Python의 gensim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한편, 토픽모델링 분석에 앞서 토픽의 개수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토픽 수가 잘못 추정되면 과적합(overfitting) 등 다양한 문제로 모형의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김태경, 최희련, 이흥철, 2016). 이와 관련, Newman et al.(2010)은 Topic Coherence를 적용하는 척도를 제안했으며, 토픽모델링으로 만든 토픽 내 상위 단어들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일관성 값이 크게 나온다. 확률적 생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토픽모델링은 모델링을 할 때마다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같은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최대화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유빈 외, 2020). 이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 개수를 산정하기 위해 Topic Coherence 지수를 활용하였다. 토픽 개수를 3개부터 20개까지의 경우를 계산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토픽 개수가 7개일 때 0.426으로 일관성 값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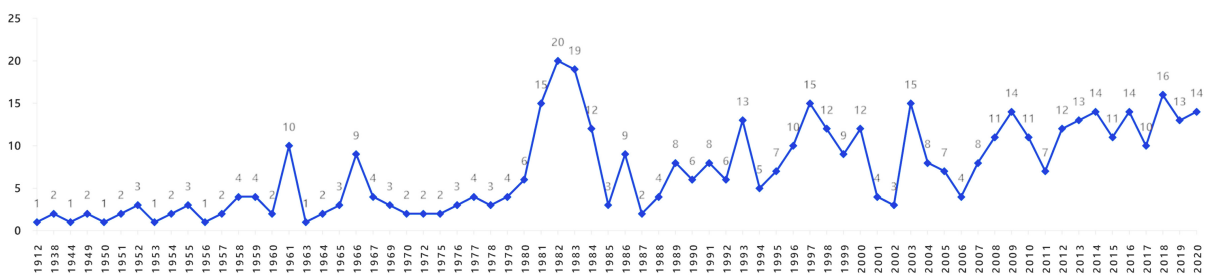
<그림 1> Topic 개수 산정을 위한 coherence score

3. 연구 분석

3.1 수집 데이터 분석

3.1.1 연도별 논문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수집된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 493편의 연도별 발행 현황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후의 연구 발행 건수는 변동 폭은 있으나 이전 시기보다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관련 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관련 연구를 다수 발행한 학술지를 살펴보면, ICA는 『Bulletin of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를 통해 호주,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중동아프리카,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 아카이브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를 다수 출판하였다. 해당 학술지는 ICA의 기업 아카이브 분과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의 전신인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에서 발행되었다(ICA, n.d.).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 SAA에서는 『American Archivist』을 통해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는 연구나 기업 기록의 보존, 처분, 접근 등과 관련된 실제 기업 아카이브의 사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연구가 다수 발행되었다.



<그림 2> 전체 논문 연도별 발행 현황

또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최초의 학술논문은 1912년에 발표되었으며, Jenkinson이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6에 발표한 “The records of the English African companies”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17~18세기 영국 아프리카 회사들의 기록을 예시로, 공공 및 민간 기록의 관점, 동시대 내러티브 역사학, 회사의 법률 및 현장의 맥락에서 기업 기록의 생산력(the record producing force)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 기록은 기업의 활동

을 정의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들의 역사와 기록에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토픽모델링 수행 후 각 토픽별 논문의 연도별 발행 추이에 대해서는 3.4절에서 서술하였다.

아울러 해당 주제의 논문을 많이 수록한 상위 20위권의 학술지 정보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학술지의 발행처, 발행국, 주제분야 등의 정보는 Scopus와 LISA(ProQuest)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정보를 참고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는 미국 SAA에서 발행하는 『American Archivist』로, 총 73편이 수록되었다. 학술지 발행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 ICA에서 발행한 학술지들이 상위 20위권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 학술지의 주제분야는 대부분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 분야로 나타났으며, 역사학, 국제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지도 상위 20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건수는 적지만 경제학, 경영정보시스템학, 금융계량경제학 등을 다루는 학술지에서도 해당 주제의 논문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학술지 발행 정보(논문 수록 건수 상위 20위권 학술지)

순위	건수	학술지명	발행처	발행국	주제분야	비고
1	73	American Archivis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미국	문헌정보학	-
2	20	Business History	Taylor & Francis	영국	역사학/국제경영학	-
3	18	Archivaria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캐나다	문헌정보학	-
4	14	Archivar	Schmitt	독일	문헌정보학	-
5	14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Society of Archivists	영국	역사학, 문헌정보학	2013년부터 'Archives&Records'로 학술지명 변경
6	14	Nordisk Arkivnyt	Islands Nationalarkiv	아이슬란드	문헌정보학	-
7	12	Archifacts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of New Zealand	뉴질랜드	문헌정보학	-
8	12	Bulletin of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문헌정보학	1990년 출판 종료
9	11	Archives and Manuscripts	Taylor & Francis	영국	커뮤니케이션학/문헌정보학	-
10	9	Archives	British Records Association	영국	역사학/문헌정보학	-
11	9	Auskunft	Deutscher Bibliotheksverband Landesverband Hamburg	독일	문헌정보학	-
12	8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History	Taylor & Francis	영국	역사학/국제경영학/경영전략학	-
13	8	Open	kluwer	네덜란드	문헌정보학	1996년 출판종료
14	8	Records Management Journal	Emerald	영국	문헌정보학/경영정보시스템학	-
15	7	Business History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국	역사학/국제경영학/관리회계학	-
16	6	Bibliotheek -en Archiefgids	VVBAD	벨기에	문헌정보학	-
17	6	Entreprises et histoire	Editions ESKA	프랑스	역사학/경제학/금융계량경제학/국제경영학	-
18	5	ARBIDO	Bern Associations	스위스	문헌정보학	-
19	5	Archiv Mitteilungen	Judisches Kriegsarchiv	독일	문헌정보학	-
20	4	Archivni Casopis	Orbis	체코	문헌정보학	-

3.1.2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을 연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총 493편(100%) 가운데 단독 연구는 379편(77%), 공동연구 114편(23%)으로 단독 연구자의 논문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공동연구 114편(100%) 중 2인 저자의 연구는 74편(65%), 3인 저자의 연구는 17편(15%), 4인 이상 저자의 연구는 23편(20%)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 493편에 해당하는 연구자 수는 70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같은 저자가 각기 다른 논문에 발표한 경우도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자 수는 총 623명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연구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의 국가와 소속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Scopus DB와 논문 내 저자 소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총 623명 가운데 국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68명이었다. 저자 568명(100%)의 소속 국가는 미국 144명(25%), 영국 97명(17%), 캐나다 42명(7%) 순으로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유럽 지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저자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국적의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총 623명 가운데 소속기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45명(10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각 대학 268명(31%), 기관 170명(49%), 기업 107명(20%)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도서관 및 기구에 속한 저자는 대학 소속이 아닌, 기관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의 베이커 도서관(Baker Library) 등과 같이 해외에서는 대학 내 소속된 도서관 및 기구에서도 특정 기업의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 런던의 길드홀 도서관(Guildhall Library) 등과 같이 기업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역 내 아카이브 및 도서관 소속의 저자 역시 기관 소속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정 기업 자체(in-house)에 설치한 기업 아카이브의 경우 기업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저자 소속기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특기할 점이라면 논문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관(170명, 49%)과 기업(107명, 20%)에 속한 저자는 기업 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 등 실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사례 연구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 국가 및 소속기관 정보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저자 국가 및 소속기관 정보

(단위: 명)				(단위: 명)	
국가명	저자 수	국가명	저자 수	소속기관	저자 수
미국	144	오스트리아	3	기관	170
영국	97	노르웨이	3	대학	268
캐나다	42	폴란드	3	기업	107
독일	31	포르투갈	3	총 545명	
호주	27	터키	3		
중국	25	알제리아	2		
이탈리아	22	인도네시아	2		
스페인	20	이스라엘	2		
프랑스	19	스위스	3		
벨기에	12	체코	2		
브라질	11	크로아티아	1		
덴마크	11	체코슬로바키아	1		
네덜란드	11	이집트	1		
스웨덴	11	홍콩	1		
인도	9	아이슬란드	1		
말레이시아	9	필리핀	1		
일본	8	슬로바키아	1		
뉴질랜드	7	슬로베니아	1		
핀란드	6	잠비아	1		
남아프리카	6	짐바브웨	1		
러시아	4	총 568명			

3.2 빈도 분석

앞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493편의 논문 영문 초록에서 총 2,005개의 고유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후 각 문서 내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TDM(Term-Document Matrix, 단어-문서 행렬)을 구성하였다.

한편, 문서는 비구조화된 자료이므로 분석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된 자료로 변환시켜야 한다. 구조화된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문서는 곧 단어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행렬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TDM이라고 하며 행렬의 요소들은 특정 단어가 문서 안에 포함되는 빈도수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오석원, 진서훈, 2012). 그러나 TDM은 단어들의 단순 빈도수를 나타내므로 빈도수가 낮은 단어일수록 중요도가 떨어진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큼 중요한지 나타내주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 가중치를 부여하면 의미가 중요하지 않지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제거할 수 있다(김선미, 나인섭, 신주현, 2019).

즉, 본 연구에서는 총 2,005개 고유 단어에 대한 TDM을 작성한 후, TF-IDF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어와 문서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단어별 TF-IDF 값을 토대로 전체 문헌 집합에 출현하는 최빈 상위 30개 단어에 대한 빈도표를 <표 4>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최빈 상위 300개 단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TF-IDF 부여는 Python의 scikit-learn 패키지 중 TfidfVectorizer를, 워드클라우드에는 WordCloud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해외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들에서는 ‘history’, ‘information’, ‘management’, ‘archivist’, ‘document’, ‘collection’ 등의 단어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는 다음 장에서 다룰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전 토픽에 걸쳐 반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핵심단어로 출현했다.

<표 4> 최빈 상위 30개 단어 빈도표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history	347	16	service	79
2	information	195	17	system	78
3	management	192	18	activity	68
4	archivist	163	19	heritage	64
5	document	161	20	preservation	58
6	collection	154	21	knowledge	48
7	organization	152	22	user	47
8	research	143	23	technology	45
9	material	110	24	content	44
10	use	98	25	function	44
11	source	95	26	documentation	41
12	value	94	27	repository	41
13	historian	91	28	context	41
14	data	88	29	framework	38
15	access	86	30	literature	36



<그림 3> 최빈 상위 300개 단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3.3 토픽모델링 분석

2,005개의 고유단어를 활용하여 LDA 알고리즘을 통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면 토픽 내 단어들을 통해 LDA의 결과인 각 토픽의 주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주제 범위를 갖는 문서들은 클러스터링된다(김선미, 나인섭, 신주현, 2019). 그러나 해당 토픽에 대한 주제(topic theme)는 연구자가 찾아내야 한다. 각 문서들은 여러 토픽과 관련 있을 수 있으며 각 문서 내 단어들은 토픽을 이루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의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함께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추론할 수 있다(정영주, 김혜진, 2020).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픽별 주요 단어와 해당 토픽을 대표하는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7개 토픽의 주제명을 지정하였다.

<표 5> 토픽모델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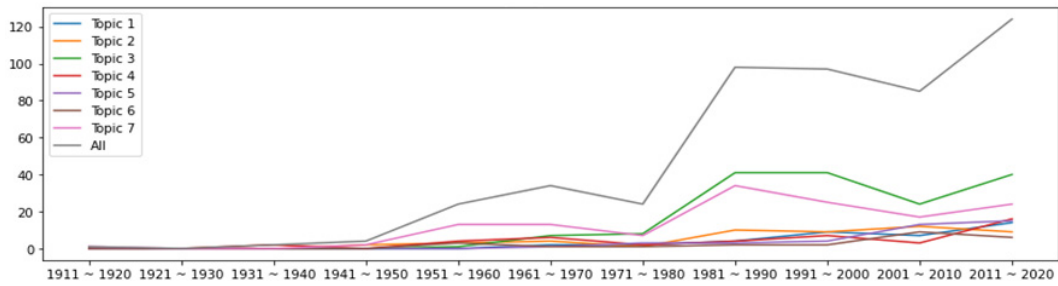
토픽	토픽 주제	비율	주요 단어
1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8%(38편)	content, document, access, website, technology, exhibition, user, digitization
2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10%(50편)	evidence, repository, information, law, provenance, procedure, resource, memory
3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33%(162편)	management, organization, information, archivist, research, asset, collection, value
4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9%(44편)	heritage, conservation, manuscript, search, transfer, access, transmedia, brand, manuscript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8%(39편)	document, context, database, system, framework, technology, identity, data
6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5%(24편)	preservation, management, retention, appraisal, security, use, bigdata, device
7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	27%(136편)	history, material, historian, collection, source, preservation, document, research

3.4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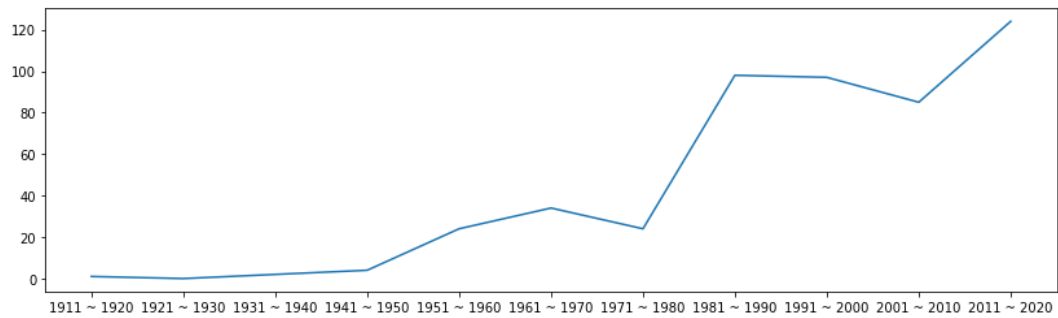
본 연구는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이 넘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각 토픽별로 논문의 발행 추이를 확인하여 시기에 따른 토픽별 증감 추이를 분석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로 제시된 7개 토픽의 연도별 논문 발행 건수는 <표 6>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Python의 matplotlib.pyplot 패키지를 사용하여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를 <그림 4>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6> 토픽별 논문 발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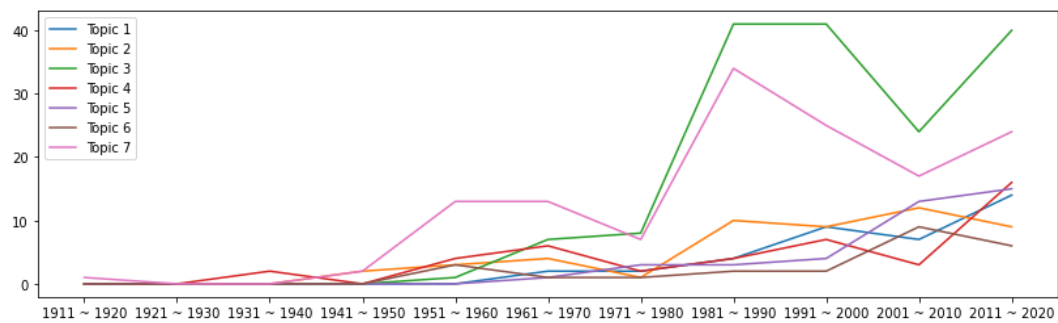
연대(10년 단위)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전체 논문
1911 ~ 1920	0	0	0	0	0	0	1	1
1921 ~ 1930	0	0	0	0	0	0	0	0
1931 ~ 1940	0	0	0	1	0	1	0	2
1941 ~ 1950	0	2	0	0	0	0	2	4
1951 ~ 1960	0	3	1	5	0	2	13	24
1961 ~ 1970	2	4	7	6	1	1	13	34
1971 ~ 1980	2	1	8	2	3	1	7	24
1981 ~ 1990	4	10	41	4	3	2	34	98
1991 ~ 2000	9	9	41	7	4	2	25	97
2001 ~ 2010	7	12	24	3	13	9	17	85
2011 ~ 2020	14	9	40	16	15	6	24	124
합계	38	50	162	44	39	24	136	493



<전체 논문+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전체 논문 발행 추이>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그림 4>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표 6> 및 <그림 4>를 바탕으로 시기별 각 토픽에 해당되는 논문의 발행 추이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논문은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 시기에 비해 1980년대(1981~1990년)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2000년대 전체 논문 발행 건수는 85편으로 1980년대(98편)와 1990년대(97편)에 비해 발행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2010년대 다시 124편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 논문의 발행 건수는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픽 3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추이와 유사한 형태의 추이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점에서 다른 토픽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토픽 1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과 토픽 4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다소 줄어든 2000년대를 제외하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서는 다른 시기에 비해 증가 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의 경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감의 변화는 있으나 증감 폭은 다른 토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토픽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의 경우, 전체 논문의 발행 건수 및 시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토픽 6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의 경우, 총 24편으로 다른 토픽에 비해 가장 편수가 적었으며, 2000년대에 9편으로 가장 많았다. 토픽 7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급격히 상승한 198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 발행 건수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와 함께 7개 토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픽 1은 ‘content’, ‘document’, ‘access’, ‘website’, ‘technology’, ‘exhibition’, ‘user’, ‘digitization’ 등의 단어로 구성되며,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 토픽 1에 해당되는 논문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다소 줄어든 2000년대에는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의 증가 폭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토픽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기업의 웹사이트와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더욱 화두가 되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토픽 1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Pompa(2020)는 COVID-19 발생 이후 기업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기업 자료를 웹 커뮤니티와 공유한 이탈리아의 패션 업계 아카이브를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디지털화와 가상현실 기술 등을 결합한 콘텐츠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을 제고한 사례를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 Martin과 Vacca(2018)는 패션 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시대의 패션 노하우, 전통 및 기억을 재고하고 변환하기 위해 회사 아카이브 및 컬렉션 개발에서 어떻게 새로운 접근 방식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Force(2009)는 인터넷 상용화 후 코카콜라, 포드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아카이브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강화를 주장하는 연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Ravenwood와 Zijlstra(2018)는 영국 Loughborough 지역의 기업과 기업 아카이브, 지역사회의 관계를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의 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기업 아카이브는 지역의 역사적 연구의 원천으로서 지역 매니아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 및 기업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나, 지역주민들은 기업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제한된 디지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한계를 밝혀냈다. Chan(2018)은 홍콩과 중국에 모두 연계되어 있는 기업을 연구할 경우, 홍콩과 중국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는 기록과 접근 방법을 조사하면서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밖에 Strickland(2002)는 영국 Unilever 기업의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외부 연구자가 기업 아카이브에 접근할 때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토픽 2는 ‘evidence’, ‘repository’, ‘information’, ‘law’, ‘provenance’, ‘procedure’, ‘resource’, ‘memory’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2의 경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감의 변화는 있으나 증감 폭은 다른 토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시기별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토픽 2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Tognetti(2012)는 이탈리아 토스카나(Tuscany)의 중세 후기 상인들이 쓴 회계 기록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들 기록은 중세 후기 경제사에 주요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2020년 연구에서는 중세 후기 및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피렌체(Florentine)의 상인들이 쓴 회계 기록은 중세 후기 경제사, 기술과 문화형성사, 사회정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Tognetti, 2020)이라고 언급하였다. Burr(1998)는 1997년 윈저 대학교 아카이브로 이전한 캐나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업무 기록 컬렉션을 통해 1897~1971년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 고용 수준, 이직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고용 패턴, 다양한 생산부문 종사자들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Carrein(2003)은 독일의 General State Archives에 보존된 19세기 독일 상인, 기업가들의 기록을 통해 1차 세계대전 동안의 브뤼셀에 있는 독일 식민지와 2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경제생활 지식을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관련하여, Farach(2016)는 다른 회사로부터 얻은 증거를 업무상 기록(Business records exception)으로 인정한 미국 플로리다 제4지방법소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기업 기록의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생산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업무상 기록은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로 일상

업무상 생성된 기록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기록 생산 과정에서 신뢰성의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Wikipedia, n.d.). Spector(2013)는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인 JCPenney의 기업 아카이브 기록을 분석하여 1902년 회사 설립부터 1933년 PLB(Private-Label Brand, 자체상표브랜드)에 대한 가격 정책에 이르기까지 JCPenney의 PLB 전략의 개발 단계를 추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Spector는 JCPenney가 자사 브랜드(Store Brand)와 PLB를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여 JCPenney가 PLB 전략의 조기 채택자였음을 주장하였다. Paddock(2000)은 기업에서 이메일에 대한 수집 및 관리 절차가 없는 것은 텍사스 증거 규칙(the Texas Rules of Evidence)에 따라 이메일이 업무상 기록으로서 자격을 얻는 기회를 얻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고객의 이메일 시스템 및 관리 정책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관련한 기록 출처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Harris(2003)는 Hudson's Bay Company의 Northern Stores Department의 기록을 예시로, 기록 정보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가 생산기관의 업무기능을 이해하여 출처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픽 3은 'management', 'organization', 'information', 'archivist', 'research', 'asset', 'collection', 'value'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토픽 3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추이와 유사한 형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토픽으로, 총 162편(33%)를 차지하며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다른 토픽들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을 언급하는 논문들이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MATSUZAKI(2012)는 사내에 설치된 기업 아카이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기업 아카이브는 사내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고 모기업의 경영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영구 기록과 현용 기록을 결합하는 기록 보존의 부재, 사내 기업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일반인에 대한 인식, 아카이브 원칙과 평가 정책, 아카이브 교육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serno(2009)은 다국적 기업의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 동기와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상의 이슈와 전략을 검토하였다. Yusof와 Chell(1999)은 말레이시아 기업들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록관리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기업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의 업무 방식을 다룬 연구도 주를 이루었다. Gray(2002)는 기업 아카이브의 '업무지원조직'(business support unit)을 창설하여 기업의 업무 요구 사항에 맞는 아카이브 운영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기업은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정의를 극복해야 하며, 기업 아카이브를 재무 및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hiri(1995)는 영국의 아카이브 사례를 검토한 후, 잠비아 연합 구리 광산회사(Zambia Consolidated Copper Mines Ltd.)의 아카이브 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기업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하여 중기 계획 및 연간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록 카탈로그 제작, 전문가협회의 회원 가입, 국내 아카이브 및 박물관과의 연계, 홍보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McDowell(1993)은 기업 아키비스트가 효율적인 문서 분류작업을 넘어 세계 비즈니스의 엄청난 복잡성과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정보의 다양성에 기업가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재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mith(1982)는 미국 기업 아카이브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내 이력관리, 마케팅, 의사결정, 신입사원 교육 등 목적 등 기업 아카이브의 관리 이점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키비스트가 기업의 성장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픽 4는 'heritage', 'conservation', 'manuscript', 'search', 'transfer', 'access', 'transmedia', 'brand', 'manuscript' 등의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4의 경우 토픽 1과 유사하게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다소 하락한 2000년대에는 경우를 제외하면 2010년대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증가 폭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이는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졌으며, 최근 기업의 홍보, 브랜드 전략, 구술채록, 스토리텔링 기법

등과 어우러져 기업 기록을 유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게 되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Presti(2018)는 방코디 나폴리 역사기록원(the Banco di Napoli Historical Archives)이 만든 멀티미디어 투어 프로그램인 일카르타스토리(IICartastorie)를 소개하였다. 이 투어 프로그램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고대 나폴리 공공은행의 기업 기록 유산을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ebastián et al.(2018)은 영국 BBC 방송국 아카이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Archives) 등 유럽의 텔레비전 아카이브가 기록 유산 컬렉션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분석하였다. 각 아카이브에서는 최근 이벤트에 관한 홍보 시, 기념일 등과 관련된 과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유럽의 텔레비전 아카이브에서는 다른 문화유산 기관과 달리 이 같은 트랜스미디어 전략이 시기상조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Jones와 Comunale(2019)는 구술사의 활용이 현대 기업사에 대한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였다. 구술사는 주요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며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더라도 얻기 어려운 수준의 뉘앙스를 가진 정보를 허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술사를 통해 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기업들이 다른 산업보다 특정 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거의 기록되지 않는 부패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까지 조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Grange(1998)는 잠재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취급되는 상업 기록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아키비스트 협회(the French Archivists Association)가 제작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 문서, 보존을 위한 법적 요건, 잠재적인 행정적 및 역사적 가치를 식별하는 가이드를 통해 자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Swank(1986)는 J. Walter Thompson 광고 대행사의 아키비스트로서 1980년대 초 아카이브를 설립한 것은 회사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기록을 조사, 평가, 수집, 보존, 정리하고, 아카이브 컬렉션을 통해 회사의 역사, 운영, 정책 및 업적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토픽 5는 ‘document’, ‘context’, ‘database’, ‘system’, ‘framework’, ‘technology’, ‘identity’, ‘data’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5의 경우, 전체 논문의 발행 건수 및 시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2010년대에는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전자기록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업 기록관리 역시 진일보한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Guo et al.(2016)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아카이브 개념과 기술 인프라 및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 기업의 경우 아카이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 기록관리(Ferrick, 2019),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 개발의 필요성(Gassel, 2008),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의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서의 기업 기록관리(Brogan, 2000), 기업의 인트라넷 문서관리시스템(Wen, Yen, & Lin, 1998),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적용(Jones & Porter, 1996)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 관리가 논의되었다.

토픽 6은 ‘preservation’, ‘management’, ‘retention’, ‘appraisal’, ‘security’, ‘use’, ‘bigdata’, ‘device’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토픽 6과 관련된 논문은 총 24편으로 전체적으로 논문 발행 건수가 가장 적은 가운데, 2000년대에 발행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다른 토픽에 비해서도 대부분의 시기에서 논문 건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관리 방법론에 해당되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Lerner(2001)는 Walt Disney Photo Library인 기업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보존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변화, 디지털 이미지의 컬러 관리에 관한 이슈에 대해 논하고 아키비스트가 기록 보존과 관련한 데이터의 손실, 비용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rsch(2009)는 기업 기록의 장기적인 보존과 접근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NDIIPP(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eservation Program)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기업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의회도서관이 관리하여 기업이 필요시 기록 검색, 소송 등에 대비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Greene(1998)은 기록 시리즈 수준에서 평가 및 재평가 결정의 기준으로서 기록의 연구 활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록을 통해 업무

처리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Lewis(1969)는 공간 부족 문제가 있는 기업 아카이브는 필연적으로 기록의 공식/비공식적 평가 기준, 유지 및 폐기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olmes(1938)는 기업 아카이브에서 제한된 공간,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지적인 평가와 의도적인 선별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픽 7은 ‘history’, ‘material’, ‘historian’, ‘collection’, ‘source’, ‘preservation’, ‘document’, ‘research’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7의 경우 136편(27%)으로 전체 토픽 7개 중 두 번째로 높은 발행 건수를 차지하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급격히 상승한 1980년대(34편)에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발행 논문이 줄어든 2000년대에는 17편으로 논문 편수가 줄어들었으나 1990년대(25편)와 2010년대(24편) 모두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토픽 7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Henderson(1982)은 독일의 Renish-Westphalian 기업 아카이브의 형성과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논하면서, 특히 지역 기업의 역사를 정리한 출판사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해당 아카이브 방문을 통해 학자들이 지역의 기업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Edgerly(1982)는 20세기 초 기업 역사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학계와 재계 모두 적절한 기업 아카이브 문헌의 필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기업 역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20세기 초 기업 기록의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 아카이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Moore와 Downey(1996)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걸친 기업 아카이브에 소장된 컬렉션에는 캘리포니아 역사 연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하다며 캘리포니아에 기업체가 생성되고 성장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Koide(2012)는 19세기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Shibusawa Eiichi)를 기념하는 시부사와 에이치 기념재단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경제사회 역사 연구의 훌륭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언급하였다. 이밖에 Pikos와 Olejniczak(2017)은 100년 이상 된 387개 폴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폴란드 장수기업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의 맥락에서 기업사 연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4.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의 학술지 및 연구자 현황 분석과 빈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4개의 학술 DB를 활용하여 총 493편의 논문의 서지사항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지정보 가운데 영문 초록을 전처리하여 고유 단어 2,005개를 추출하고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토픽모델링을 통해 전체 문헌 집단에서 7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각 토픽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문 발행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후 해당 토픽의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고 각 토픽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 시기보다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초반, 관련 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 관련 연구를 다수 발행한 학술지는 ICA의 『Bulletin of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 미국 SAA의 『American Archivist』였다. 아울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최초의 학술논문은 1912년에 발표된 Jenkinson의 “The records of the English African companies”로 밝혀졌다. 이밖에 해당 주제의 논문을 가장 많이 수록한 학술지는 미국 SAA의 『American Archivist』로, 총 73편이 수록되었다. 학술지의 주제분야는 대부분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 분야로 나타났으며, 역사학, 국제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지도 상위 20위권을 차지하였다.

둘째, 총 493편의 논문 가운데 단독 연구는 379편(77%), 공동연구 114편(23%)으로 단독 연구자의 논문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전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 493편에 해당하는 연구자 수는 705명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저자가 중복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자 수는 총 623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총 623명 가운데 국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68명(100%)으로, 미국 144명(25%), 영국 97명(17%), 캐나다 42명(7%) 순으로 저자의 국가정보가 파악되었다. 아울러 총 623명 가운데 소속기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45명(10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각 대학 268명(31%), 기관 170명(49%), 기업 107명(20%)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 소속기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특기할 점이라면 논문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관(170명, 49%)과 기업(107명, 20%)에 속한 저자는 기업 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 등 실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사례 연구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TF-IDF 가중치에 따른 단어들의 빈도 분석 결과, ‘history’, ‘information’, ‘management’, ‘archivist’, ‘document’, ‘collection’ 등의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어들은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전 토픽에 걸쳐 분포되어 토픽의 주제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넷째, LDA 알고리즘을 통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를 7개 토픽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토픽의 주제명을 지정하였다. 7개 토픽의 주제는 각각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이다. 토픽모델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같은 거시적인 주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처분, 접근, 이용 등 관리 측면의 미시적인 연구까지 폭넓은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다섯째, 시기별로 각 토픽들의 발행 추이를 살펴본 결과, 토픽 3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은 전체 논문 발행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높은 발행 건수를 보였다. 또한 토픽 1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과 토픽 4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은 2010년대에 들어 증가 폭이 높아 최근 이들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토픽 2, 7에 해당하는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동 폭은 있으나 꾸준히 다뤄지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픽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는 전체 논문 발행 건수와 시기에 관계없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 주제였으며,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기록관리 방법론을 다룬 토픽 6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연구 주제는 2000년대 발행 논문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다른 토픽에 비해 대부분의 시기에서 논문 건수가 적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앞서 살펴본 국내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기업 기록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원칙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의 현용 및 비현용 기록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이론, 원칙에 관한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토픽이 전체 토픽 중 가장 많은 비율(33%, 162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주제의 경우,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높은 발행 건수를 보이며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 밝혀졌다. 기업 아카이브 설치에 대한 법적인 당위성이 없는데, 기업 아카이브의 설치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리의 이점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궤를 함께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논문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가치 및 운영 전략을 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영국 경제사와 은행의 상호관계 속에서 은행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제시(Cassis, 1992)하거나 미국 기업 아카이브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연적인 기업 아카이브의 탄생과 그 가치를 강조(Smith, 1982)하는 등 거시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의 운영에 있어 조직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에게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기업 아카이브

스트들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국내에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업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면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초 연구가 잘 쌓아진 토대 위에서 기업 아카이브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 기록의 생산, 보존, 처분, 이용 등의 관리 측면을 다루는 미시적인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기업 아카이브 분야가 학문의 갈래로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업 아카이브의 운영 형태나 기록물 컬렉션의 유형 등을 조사한 사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관리 측면의 연구에서 나아가 컬렉션이나 시리즈 단위 기록의 출처를 연구하여 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고,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 ‘기업 기록의 정보적 가치’, ‘기업 기록의 증거적 가치’,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 토픽이 각각 도출되었는데, 이들 연구 주제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동 폭은 있으나 꾸준히 다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토픽에 포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업 기록을 분석하여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예를 들어 Burr(1998)는 캐나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업무 기록 컬렉션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pector(2013)는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인 JCPenney의 아카이브 기록을 통해 해당 회사의 PLB 전략에 관한 주요 증거를 발견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정통성을 입증하였고, Farach(2016)는 소송 등에서 업무상 기록(Business records exception)으로 인정받고 기록의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록 생산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Koide(2012)는 시부사와에이치 기념재단의 기록물은 일본의 경제사회 역사 연구의 훌륭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기록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기록의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셀렌버그가 제시한 기록의 2차적 가치와도 결부되며, 이러한 가치는 나아가 기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기업 아카이브는 외부인의 특별한 요청 없이도 조직 자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 기록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에게 연구 정보원으로서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다학제적인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 결과,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가 논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의 가치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주제와도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다학제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들은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에도 역사학, 국제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다루는 다양한 학술지에서 발행되었으며, 이밖에도 건수는 적지만 경제학, 경영정보시스템학, 금융계량경제학 등을 다루는 학술지에서도 해당 주제의 논문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학제적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delholt(2013)는 경영사학자들이 기업 아카이브의 기록을 활용하여 광고의 역사를 요약한 작업물을 다학제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광고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역시 향후 연구 등에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ughes(2014)는 기업이 내린 과거의 결정, 금융 거래 및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을 아카이브의 사회적, 문화적 목적과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기록 평가에 있어 기록관리학과 문화연구학의 이론적 중복과 차이를 조사하고 문화연구에 기반한 평가 방법이 기업 아카이브의 기록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였다. Green과 Lee(2019)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를 충족하는 기업 기록 컬렉션 작업에 있어, 기업 아카이브와 역사학자들의 협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역사가의 역할이 시작되는 곳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이 끝나는 순차적 모델이 아닌, 반복적 또는 대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보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업 기록이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한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것은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며 경제사회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본래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업 내외적으로 수많은 이슈와 갈등에 부딪치기도 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업무 증거를 관리하고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와 융합하여 입체적인 연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토픽모델링 및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주제를 다룬 논문의 증가 폭이 컸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주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과 토픽별 시기적인 흐름 역시 국내 기업 아카이브 발전에 있어 다뤄져야 할 이슈로 시사점이 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주제에 대한 시사점까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학문과 실무가 한 걸음 발전한 이후 되짚어 볼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 연구 동향 분석에 있어 단행본, 학위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제외하고 특정 학술 DB에서 검색되는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협의회, 분과만 보더라도 관련 세미나 자료와 단행본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지만, 학술 DB에서와 같이 통일된 형태의 서지 데이터로 수집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다. 또한 토픽모델링 작업 시 데이터 전처리는 필수적인 과정이나, 고유명사 등의 불용어 제거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추출된 단어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범주를 폭넓게 설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심층적인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호 (2015). 기록경영시스템 요건을 적용한 기업 기록관리 평가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강선에 (2015). 기록경영시스템의 기업 홍보 기대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고선미 (2002). 포스코 기업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록관리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금이 (2008). 한국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내 기록관리 정착 방안: 프랑스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학.
- 김민주 (2017). 기업 기록관리와 히스토리마케팅·스토리텔링.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김민희 (2020). 금융투자회사의 기록관리 전문직 잠재수요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인문학과.
- 김선미, 나인섭, 신주현 (2019). 단어 연관성 가중치를 적용한 연관 문서 추천 방법.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2(2), 250-259. <https://doi.org/10.9717/kmms.2019.22.2.250>
- 김성우, 이해영 (2020).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 방안 연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99-11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99>
- 김성환, 오효정 (2018).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지리적 시간적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65-189.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65>
- 김영애 (2003). 독일 경제아카이브즈의 형성과 유형. 기록학연구, 8, 137-180. <https://doi.org/10.20923/kjas.2003.8.137>
- 김유리 (2009).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기록관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김익환, 김영애, 라창호, 박미자 (2000).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기업기록관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김재남 (2002). 사사편찬을 중심으로 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협동과정 기록관리전공.

- 김태경, 최희련, 이홍철 (2016).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핀테크 기술 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1), 670-681
<https://doi.org/10.5762/KAIS.2016.17.11.670>
- 김화경 (2007). 기업 사료의 수집평가방안 연구. 메리츠화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5, 219-262.
<https://doi.org/10.20923/kjas.2007.15.219>
- 김효선, 김지현 (2019).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139-173.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139>
- 남재우, 김장환 (2018). 국내 기업 보존기록에 관한 기초 연구. 기록학연구, 55, 135-163.
<https://doi.org/10.20923/kjas.2018.55.135>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박용부, 김태수 (2011).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83-101.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83>
- 박준형, 류범모, 오효정 (2018).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관리학 토픽 트렌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설문원 (2015). 기업 소송에 대비한 정보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세도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25-354.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12.325>
- 설문원, 이해인 (2016).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 양소연 (2021). 기업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업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오석원, 진서훈 (2012).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쇼핑몰 구매후기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4(1), 125-137.
- 윤여현, 이보람,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6). 'Information Management'지에 나타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이슈와 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3(4), 245-26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45>
- 이동혁 (2018). 기업사료실의 구축 현황 분석과 과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유빈, 이영호, 성정창, 애나 스타네스쿠, 지상훈, 황철수 (2020). 계량적 모델을 통한 지리학 연구의 최신동향 및 토픽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6), 589-599. <https://doi.org/10.22776/kgs.2020.55.6.589>
- 이진석 (2018). 국내 기업 기록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현아 (2021). 기업 현용기록관리를 위한 레코드 매니저의 업무영역 및 역량에 관한 연구: 해외 기업 업무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임종철 (2007). 기업사료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기애, 남영준 (2007). KM 거버넌스 기반의 기업 전자기록물 관리 최적화 전략 연구. 정보관리연구, 38(3), 161-181.
<https://doi.org/10.1633/JIM.2007.38.3.161>
- 정영주, 김혜진 (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103-121.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103>
- 조은누리, 장태우 (2020). 특허 분석을 통한 스마트공장 관점의 5G 기술개발 동향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3), 95-108.
<https://doi.org/10.7838/jsebs.2020.25.3.095>
- 주서진 (2008). 기업아카이브 역할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채민훈, 이해영 (2021).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 통합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163-187.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163>
- 최경애 (2005). 기업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사사를 편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홍지은 (2011).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유산과 기업문화 형성 및 증진에 관한 연구. 기업유산 증진을 위한 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https://doi.org/10.1145/2133806.2133826>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rogan, M. (2000). Frontiers in recordkeep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chives and Manuscripts*, 28(1), 38-51.
- Burr, Christina (1998). Business Records of the Ford Motor Company of Canada Ltd, 1897-1971. *Labour/Le Travail*, 41, 328-329. <https://doi.org/10.2307/25144271>
- Carrein, K. (2003). The sequestered archives after World War I: considerations on the origin, the management and the use for (business) historical research of a unique collection of business archives. *Belgisch Tijdschrift voor Nieuwste Geschiedenis*, 2003, 3-4.
- Cassis, Y. (1992).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bank archives. *ARBIDO-Review*, 7(4), 103-105.
- Chan, P. K. (2018). Company records in Hong Kong: Significance for journalists probing issues in Hong Kong and related to China. *Asian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8(1), 75-85. <https://doi.org/10.1108/AEDS-03-2016-0025>
- Deserno, Ineke (2009). The value of international business archives: The importance of the archiv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shaping cultural identity. *Archival Science*, 9, 215-225.
- Edelholz, Peter (2013). Conservation and Delivery Agreements for Private Digital Records: A Focus on Business Archives. *Nordisk Arkivnyt*, 58(4), 195-196.
- Farach, Manuel (2016). The Calloway Conundrum: Exploring the Business Records Exception and Florida's Evidence Code. *Florida Bar Journal*, 90(2), 48-52.
- Ferrick, Brandon (2019). Modernizing the Stockholder Shield: How Blockchains and Distributed Ledgers Could Rescue the Appraisal Remedy. *Boston College Law Review*, 60(2), 621-671.
- Force, Marie, (2009). "Company History": Corporate Archives' Public Outreach on Fortune 100 Company Websites. *Provena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Georgia Archivists*, 27(1), 24-50.
- Gassel, Christine (2008). Electronic Ordering in the Archives of the Future: Stored and Forgotten? -- Archivists Struggle with Hightech and Digitalization in an Increasingly Complex Information Flood. *A.B.I. Technik*, 28(4), 258-260.
- Grange, D. (1998). Les archives dans l'entreprise. *Archives in business. ARBIDO*, 13(2), 8-9.
- Gray, V. (2002). Developing the corporate memory: the potential of business archives. *Business Information Review*, 19(1), 32-37. <https://doi.org/10.1177/0266382024238266>
- Green, Alix R. & Lee, Erin (2019). From transaction to collaboration: redefining the academic-archivist relationship in business collections. *Archives & Records*, 41(1), 32-51. <https://doi.org/10.1080/23257962.2019.1689109>
- Greene, M. (1998). 'The surest proof': a utilitarian approach to appraisal. *Archivaria*, 45, 127-169.
- Guo, W., Fang, Y., Pan, W., & Li, D. (2016). Archives as a trusted third party in maintaining and preserving digital records in the cloud environment. *Records Management Journal*, 26(2), 170-184. <https://doi.org/10.1108/RMJ-07-2015-0028>
- Harris, Geraldine Alton (2003). An Archival Administrative History of the Northern Stores Department, Hudson's Bay Company, 1959-1987, October 1994. *Archivaria*, 55, 110-111.
- Henderson, W. O. (1982). The Rhenish-westphalian Business Archives. *Business History*, 24(2), 211.
- Holmes, Oliver W. (1938). Evaluation and preservation of business archives. *American Archivist*, 1(4), 171-185.
- Hughes, Kit. (2014). Appraisal as cartography: Cultural studies in the archives. *American Archivist*, 77(1), 270-296.
<https://doi.org/10.17723/aarc.77.1.85175154j4m45578>
- ICA, (n.d.). Session 8.5 Section on Business Archives.
Available: <https://www.ica.org/en/8-achievements-ica-network-2012>
- Jenkinson, Hilary (1912). The Records of the English African Companies.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6, 185-220.

- Jones, A. & Porter, G. (1996). From collodion to CD: the experimental image retrieval system at the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Manchester.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17(1), 67-72.
- Jones, Geoffrey & Comunale, Rachael (2019). Oral history and the business history of emerging markets. *Enterprise and Society*, 20(1), 19-32.
- King, Kiara (2012). Intro to Business Archives. Available: <https://www.slideshare.net/araik/intro-to-business-archives>
- Kirsch, David A. (2009). The record of business and the future of business history: Establishing a public interest in private business records. *Library Trends*, 57(3), 352-370.
- Koide, Izumi (2012). Centering Shashi and Business Archives as Resources for the Study of Economic and Social History: The Activities of the Shibusawa Eiichi Memorial Foundation. *Shashi*, 1(1), 1-10. <https://doi.org/10.5195/shashi.2012.8>
- Lerner, A. (2001). Business archives and digital images: Preservation issues versus getting the job out. *Imaging Science Journal*, 49(3), 171-175.
- Lewis, David L. (1969). Appraisal criteria for retention and disposal of business records. *American Archivist*, 32(1), 21-24.
- Martin, M. & Vacca, F. (2018). Heritage narratives in the digital era: How digital technologies have improved approaches and tools for fashion know-how, traditions, and memories. *Research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22(4), 335-351.
- MATSUZAKI, Yuko (2012). Business archives as assets: the need to work out value-added use and some further issues(Current states of the Archives in Japan). *Th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62(10), 422-427.
- McDowall, D. (1993). "Wonderful Things": History, Business, and Archives Look to the Future. *The American Archivist*, 56(2), 348-356. <https://doi.org/10.17723/aarc.56.2.q112105883058550>
- Moore, Alison & Downey, Lynn (1996). Black Telephones and Blue Denim: Business Archives in California. *California History*, 75(1), 26-33. <https://doi.org/10.2307/25177555>
- Newman, D., Lau, J. H., Grieser, K., & Baldwin, T. (2010). Automatic evaluation of topic coherence, Humanlanguage technologies. The 2010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00-108.
- Paddock, Robert L. (2000). Utilizing E-Mail as Business Records Under the Texas Rules of Evidence. *Review of Litigation*, 19(1), 61-70.
- Phiri, J. (1995). Lessons to be learnt by the Zambia Consolidated Copper Mines archives from a study tour to Britain. *S. A. Archives Journal*, 37, 104-106.
- Pikos, A. & Olejniczak, T. (2017). Business History in Poland: Current State and Future Potential. *Central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5(3), 55-77. <https://doi.org/10.7206/jmba.ce.2450-7814.199>
- Pompa, C. (2020). La memoria 'estesa' della moda. Come valorizzare l'heritage aziendale con la tecnologia. *ZoneModa Journal*, 10(2), 27-41.
- Presti, Olga Lo (2018). A walk in the archive of IlCartastorie[Una passeggiata nell'archivio di IlCartastorie]. *Mondo Digitale*, 17(78).
- Ravenwood, Clare & Zijlstra, Tim (2020). Business archives and local communities: corporate heritage in Loughborough, UK. *Archives & Records*, 39(2), 211-223. <https://doi.org/10.1080/23257962.2017.1336615>
- Sebastián, M. C., Morales García, A. M., Martínez Cardama, S., & García López, F. (2018). Los archivos audiovisuales de televisión: estrategias para su revalorización en un entorno transmedia. *Revista Latina De Comunicación Social*, (73), 870-894. <https://doi.org/10.4185/RLCS-2018-1286>
- Smith, George David (1982). Dusting off the cobwebs: turning the business archives into a managerial tool. *American Archivist*, 45(3), 287-290.
- Spector, Bert (2013). The evolution of a private-label brand strategy at J.C. Penney, 1902-33. *Management & Organizational History*, 8(4), 387-399. <https://doi.org/10.1080/17449359.2013.831736>
- Strickland, Jeannette (2002). Confidentiality Agreement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3(1), 68-71. <https://doi.org/10.1080/00379810220120573>

- Sukhija, N., Tatineni, M., Brown, N., Moer, M. V., Rodriguez, P., & Callicott, S. (2016). Topic modeling and visualization for big data in social sciences. 2016 IEEE Conferences, 1198-1205.
- Swank, Cynthia G. (1986). Life in the Fast Lane. *The Reference Librarian*, 5(13), 81-87. https://doi.org/10.1300/J120v05n13_07
- Tognetti, S. (2012). Merchant-bankers and account books in late medieval tuscany: The editions of business registers from the 1960's to today. *Anuario de Estudios Medievales*, 42(2), 867-880.
- Tognetti, S. (2020). A civilization of accountants. *Business archives and social distinction in late medieval and Renaissance Florence*. *Reti Medievali*. 21(2), 1-30.
- Wen, H. J., Yen, D. C., & Lin, B. (1998). Intranet document management systems. *Internet Research*, 8(4), 338-346.
- Wikipedia, (n.d.). Business records exception.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Business_records_exception
- Yusof, Z. M. & Chell, R. W. (1999). Managing business records in Malaysia: Awareness and attitudes among business managers. *Information Development*, 4(15), 228-235. <https://doi.org/10.1177/026666699424000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e, Minhoon & Rieh, Hae-young (2021). Study on Integrated Plan for Records Management based on Knowledg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163-187.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163>
- Cho, Eunnuri & Chang, Tai-Woo (2020). Patent Analysis on 5G Technology Trends from the Perspective of Smart Factory.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25(3), 95-108. <https://doi.org/10.7838/jsebs.2020.25.3.095>
- Choi, Jung-Ai (2005).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ong, Ju-Eun (2011). A study on formation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heritage and culture through records/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activities of social and corporate foundation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eong, Ki-Ae & Nam, Young-Joon (2007). Effective Corporat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with KM Governance.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8(3), 161-181. <https://doi.org/10.1633/JIM.2007.38.3.161>
- Joo, Seo-Jin (2008). A study on introduction of corporate archival programs according to a change in corporate archive's rol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ung, Young-Joo & Kim, Hea-Jin (2020).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Research Trends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103-121.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103>
- Kang, Min-Ho (2015). A Case Study on the Appraisal of Business Records Management by Applying Requirements of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im, Hwa Kyoung (2007). A Case Study of a Acquisition & Appraisal Policy of Business Archives: With a Focus on Meritz.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219-262. <https://doi.org/10.20923/kjas.2007.15.219>
- Kim, Hyosun & Kim, Jihyun (2019). A Study on Overseas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4), 139-173.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139>
- Kim, Ik-han, Kim, Young-ae, Ra, Chang-ho, & Park, Mi-ja (2000).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nd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 Kim, Jaenam (2002). The key function of the business archives focusing on compilation of the company history.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Keum Ei (2008). A study on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in enterprise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nterprises: focused on business records management in Franc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Min-Hee (2020). A Study on the Potential Demand of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i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Master's thesis.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Min-Joo (2017).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and history marketing · storytelling.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Seonmi, Na, InSeop, & Shin, Juhyun (2019). A Method on Associated Document Recommendation with Word Correlation Weights.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22(2), 250-259. <https://doi.org/10.9717/kmms.2019.22.2.250>
- Kim, Sung-Hwan & Oh, Hyo-Jung (2018).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Analysi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ased on Onlin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65-189.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65>
- Kim, Sung-woo & Rieh, Hae-young (2020). A Study on the Accumulation and Use of Corporate Records: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as a Big Data Platfo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99-11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99>
- Kim, TaeKyung & Choi, HoeRyeon, & Lee, HongChul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Fintech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670-681. <https://doi.org/10.5762/KAIS.2016.17.11.670>
- Kim, Young-Ae (2003). The formation and types of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8, 137-180. <https://doi.org/10.20923/kjas.2003.8.137>
- Kim, Yu-Ri (2009). Study on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from Public Point of View-Focused on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in the U. S. A.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o, Sunme (2002). The analysis of archival science for the busines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POSCO.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Dong-Hyuk (2018).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Establishing Corporate Archiv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Hyun-A (2021). Study on the Scope of Job and Competencies of Corporate Records Manager: With Focus on the Cases of Overseas Corporate Job Descriptio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Jin-Seok (2018). A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Management of Domestic Enterpris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Yubin, Lee, Youngho, Seong, Jeongchang, Stanescu, Ana, Jie, Sanghoon, & Hwang, ChulSue (2020). An Analysis of the latest Trends and Topics in Geography Research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5(6), 589-599. <https://doi.org/10.22776/kgs.2020.55.6.589>
- Lim, Jong-Chul (2007). A Developing Framework for Corporate Archives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Nam, Jae-woo & Kim, Jang-hwan (2018). A Preliminary Study on Business Archives in Korea.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55, 135-163. <https://doi.org/10.20923/kjas.2018.55.135>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Oh, Suk-Won & Jin, Seo-Hoon (2012). A Study on Analysis of Internet Shopping Mall Customers' Reviews by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1), 125-137.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Park, JunHyeong, Ryu, Pum-Mo, & Oh, Hyo-Jung (2018). Timeline-Based Topic Trend Analysis of Archives Management

-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Park, Yong-Boo & Kim, Taesoo (2011). A Study on the Model for Construction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83-101.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83>
- Seol, Moon-won & Lee, Haein (2016). Busines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4), 7-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4.007>
- Seol, Moon-Won (2015). Building Corporate Information Governance to Prepare for Litigation: Practical Implication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25-354. <https://doi.org/10.16981/kliss.46.201512.325>
- Yang, So-Yeon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for Storytelling.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Yoon, Yeo Hyun, Lee, Bo Ram, Choi, Dong Woon, Choi, Yun Jin, & Yim, Jin Hee (2016).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ssues and Trends Traced from ARMA's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45-26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45>